“돼지 태에 들지 않으려면 삼귀의를 외워라”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2)

도리천인이 죽으려 할 때 부처님을 만나 인간으로 태어나다

옛날 도리천궁에 한 천인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하려는 일곱 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수명을 마친 뒤에는 내려가 구아나갈국의 옴딱지 붙은 어미 뱃속의 돼지가 되겠구나.’

천인은 자신의 내생이 축생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걱정하고 괴로워 했다. 이를 본 다른 천인이 걱정스러워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부처님만이 그대의 죄를 벗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부처님께 가 보십시오.”

천인은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는데, 묻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천인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만물이 모두가 무상하다 함을 그대는 평소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육도의 윤회 또한 알고 있음인데 그대는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냐?”

천인이 자세히 부처님께 고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돼지 몸을 여의려면 삼귀의를 외워야 하리라.”

그렇게 사흘 동안 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밤낮으로 귀의하였는데, 그로부터 7일만에 수명이 다하면서 유야리국으로 내려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에도 날마다 삼귀의를 외웠고, 처음 태어나며 땅에 떨어질 때에도 무릎을 꿇고 삼귀의를 외웠다. 그 어머니는 제 스스로 힘을 썼고 오로(惡露)까지도 없었는지라, 어머니 곁의 시비들도 두려워서 버리고 도망갔다. 어머니 또한 매우 괴이하게 여기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바로 말을 함은 재앙이라 하더구나.”하며 아기를 죽이려 하다가 물러나 생각하기를 ‘내가 철이 없구나, 만약 이 아이를 죽이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벌하리라. 천천히 장자에게 알리고서 죽여도 늦지 않으리라.’ 하고 바로 아이를 안고 장자에게 가서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낳은 사내아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괴이하게 여기면서 재앙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마라. 세상 사람은 백 살이 되어도 삼보에 귀의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처음 땅에 떨어지면서 ‘나무불’ 하고 일컬음이겠는가? 잘 기르면서 살펴볼 것이지, 삼가 경망하게 굴지 마라.”

아이는 자라서 일곱 살이 되었다. 어느 날, 또래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다가 마침 사리불과 목련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 가서 절을 하였다. 여러 성인들은 어린데도 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신이하게 여겼는데 아이가 말하였다.

“도인이시여, 저는 본래 천상에 있었으나, 나쁜 길에 가서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자비로 귀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컨대 나의 말로써 세존과 모든 보살승과 아울러 당신들을 청하여 공양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청을 받아들이자, 아이는 돌아가서 부모님께 아뢰었다.

“그 공양을 마련하되 고루 맛있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말한 대로 따랐는데, 그 어린 나이에 큰 뜻을 내는 것이 신이하고, 숙명을 알고 하는 바가 기특해서 매우 보배롭고 이름 있는 세상의 묘한 맛을 다 마련하고 공양거리도 정세하게 아이 뜻보다 더 뛰어나게 하였다.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은 저마다 신족(神足)으로 아이 집에 와서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경을 말씀하시니, 아이와 그 부모와 친속들이 모두 아유월치(阿惟越致 · 성불이 결정됨과 동시에 보살의 지위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었다. (〈절복나한경 · 折伏羅漢經〉에서 전한다.)

삼십삼천인이 돼지로 태어나야 했는데 인간으로 나다

삼십삼천인이 수명이 다하려는 다섯 가지 징후가 나타나자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제석이 알아듣고 물었다. “저 천궁에서 어떤 천자가 걱정하며 신음하는가?” 곁에 있던 한 천자가 대답했다. “한 천인에게 다섯 가지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제석이 연유를 알아차리고 그곳에 나아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에 천인가 대답했다. “저는 곧 돼지의 몸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석이 게송으로 말했다.

‘온갖 행은 덧없어서 / 나는(生)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고 / 대개가 나는 것은 문득 죽게 되니 / 이 사라짐(滅)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네.’

“저는 그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천궁의 갖가지 5욕(欲)을 모두 이별해야 하며, 수명이 끝나면 바로 나열성의 돼지 태 안에 나게 됩니다. 먹는 것은 바로 똥이요, 그러다 도살장에 가서 죽게 될 것이므로 저는 지금 이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천인이 법을 들은 적 없어 아는 바가 없으니, 제석이 천인에게 다시 말했다. “온갖 은애와 사랑에는 모두 이별이 있다. 그대는 이제 불 · 법 · 승에 귀의하여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나 부처님께 귀의하면 / 3악도에 나아가지 않고, / 천상 인간에게 복을 누리다가 / 뒤에는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이에 천인은 합장하고 “세존이시며 일체지(一切智)이시여, 밝게 살피시어 구제하여주소서. 저는 이제 귀명불 · 귀명법 · 귀명비구승 하겠습니다”고 했다.

마침내 천인은 돼지 태 안에 나지 않고 나열기성 첫째가는 장자 집에 태어나게 되었다. (〈증일아함경 제19권〉에서 전한다.)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②

법계의 모든 생명 행복한 삶 누리소서

2013년 새아침 축원

내가 30대에서부터 늘 지켜온 일이 있다. 우리 내외는 어린 아이들과 새해 1월 1일 0시가 되면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와 무사한 지난날들에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새날을 동시에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집 부처님 방에서 기도를 올린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라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으니 각자의 집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를 올리고 마치면 서로가 휴대폰 문자로 메시지로 신년 인사를 나눈다.

가족들의 진심어린 축원으로 새로운 한 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길 기원한다는 아름다운 글들이다. 조용한 새벽의 기도는 지극한 마음의 약속과 진실한 서원을 발원함이니 지난날의 삶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다.

지난해에도 오늘과 같은 기도였는데 왜 그리도 허물이 많은 지 참회로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래도 새해가 있고 새날을 만날 수 있으니 새롭게 출발하는 기대와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함이 있어 고맙기 그지 없다.

경 읽고 경 쓰고 절을 하면서 정근도 한다. 이때만은 내 속에서 나를 보며 나를 채운다. 기도를 마칠 때 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뵐 수 없는 지난날 스승님들을 생각하며 그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리고 양가 조상님들께 감사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약속드리는 절을 하고는 새벽잠을 잔다.

날이 밝아 햇님이 동쪽 산위로 오를 때면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밝혀주는 당신을 뵐 수 있어 감사드리며 천지 만물 우주조화 공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생명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아침은 새롭고 감사하기만하다. 우리 내외 금정산 산님께도 새해 인사를 간다. 걸어가면서 천수경을 큰 소리로 외운다. 관음정근도 하고 맑은 공기에 마음의 향을 올린다. 싱그러운 솔의 향기가 바람결에 더욱 신선하게 코끝에 와 닿는다.

거북등처럼 투박한 옷을 입고 서 있는 큰 소나무를 두 팔 벌려 안고는 나무님께 속삭여본다.

“나무님! 정말 멋지십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때라도 한 결 같이 청정한 바람으로 맞이해 주시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도 닮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산을 내려온다. 좋은 새해 새 아침이었다. 종일 덕담이 담긴 메시지가 오고 가고 올해는 더욱 더 행복할 것 같다. 2013. 1. 1.

나목(裸木)은 부끄럽지 않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마당을 내려갔다가 화단의 나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늘 무심코 지나던 내가 오늘은 이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추위에 겹겹이 입고도 날씨가 춥다고들 호들갑을 떠는데 이렇게 발가벗은 나무들이 한 결 같이 외소한 가지들로 팔 벌려 서있다. 대추나무도 매실나무도 감나무도 목련도 이 추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나목으로 서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엄마나무이기 때문에 강한 것일까.

새봄이 오면 더 충실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굳건함으로 이 추위를 받아들이며 점점 몸을 키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본래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 해 보았다. 옷이 아닌 이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내 본성의 모습을. 나무는 정직하다. 자기모습은 다시 또 그 모습으로 내년에도 그 후 내년에도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도 막지만 정작 내 속에 간직되어있는 나는 떠돌이 마음인 것만 같다. 오늘 내가본 나목들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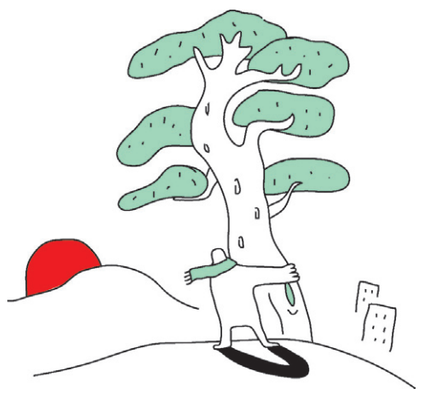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는 그 나무들을 스승으로 삼았다. 2012. 겨울

방송국 연말 시상식을 보다가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다. 연말 방송국 연기자들의 시상식이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연예인 중에는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소감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불자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불자임을 숨기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습을 내가 샘을 내고 있는 것일까. 불자 연예인이 없는 탓일까.”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부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다.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을 보면서 왜 불자들은 불자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조금 속상했다. 곳곳에 우리 불자들을 잘 키워 어느 곳에서건 불자들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많던 청년회가 자리를 잃고 학생회가 자꾸만 무너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 골짝마다 절의 모습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다. 그런데 50년 후 그곳의 주인이 누구일지 한번쯤 고민해야 할 것 같다. 2012. 12.

부산 연꽃모임회장

국 내 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 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 · 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김성우 공저
신국판 · 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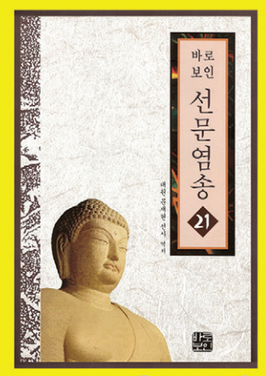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